

## 제14차 WEC總會 몬트리올에서 開催

韓國代表 28명 각분야에서 활동

WEC 第14次 總會가 “未來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TOMORROW)”라는 主題로 전세계로부터 5,000餘名의 에너지 관련 人士들이 모여 180편의 에너지 관련 論文發表와 討論, 展示會, 青年·學生層 프로그램인 科學博覽會, 產業視察, 各 國內委員會로부터 選別 접수 된 약 50편의 에너지 관련 영화 및 비디오 上映 등 다채로운 内容으로 개최되었다.

韓國側에서는 이번 總會에 李鳳瑞 動力資源部長官(各譽團長), 安秉華 韓國 電力公社 社長(團長)을 비롯한 28명의 會員社 經營陣으로 構成된 대표단이 참가하여 각종 常任 및 研究委員會, 國際執行理事會, 技術會議 등에 參석하여, 論文發表, 에너지 관련 情報蒐集 및 韓國의 에너지 現況을 소개 弘報하였다.

이번 總會의 主要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常任 및 技術研究委員會

行政委員會, 企劃委員會 및 節約·研究委員會의 3개 常任委員會와 Energy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Committee 等 7개의 技術研究委員會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總會 및 國際執行理事會(IEC)會議 기간중에도 별도 開催되어 IEC本會議와 總會에 上程될 사항들을 事前審議하고 그간의 活動事項에 관한 보고, 앞으로의 運營方向·計劃 등을 論議하였다.

그중 韓國側 委員들이 參석한 會議內容은,

- 節約·研究委員會(韓電 技術研究院 南廷一院長 參석);

總15個의 議題를 심의하였으며 주로 이번 總會에 출제되는 18個 研究課題의 推進現況 확인과 次期(89/92) 推進 課題의 개요를 검토함. 또한 89/92기

간의 研究課題에 대해서는 個別主題의 研究方式을 止揚하고 量보다 質위주의 研究가 되도록 ‘top-down’式 政策方向을 調和시켜 體系化, 効率化시키도록 함. 이를 위하여 Task - Force팀(4개반) 구성을 추진토록 合意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新任委員長(現 Ekberg氏는 任期滿了)으로 하여금 최 단시일내에 C&S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토록함.

Energy Resources, Energy Conversion, Energy Utilization, Energy Systems 등 4개 Division Coordinator가 결정되었으며 Central Coordinator는 Mr. Lindstrom(스웨덴)이 맡도록 함. 우선적 임무는 89/92 기간에 ‘Energy for Tomorrow’s World’라는 主題의 報告書를 Madrid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推進하는 것임.

- 開途國 에너지問題 委員會(에너지協議會 金相演 事務局長 參席);

86/89 Work Programme을 검토하고 이번 總會의 Round Table 6. ‘Energy for Tomorrow in the Developing World?’에 상정할 보고서를 심의함. Dr. J-R.Frisch(프랑스)가 “New Energy Perspectives 2000–2020”에 관한 研究調查內容 보고, WEC 事務總長 Mr. I. D. Lindsay가 WEC의 業務擴張 活性化를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Regional Energy Forum의 개최를 적극 권장하고來年 6월 Abidjan에서 개최되는 中央아프리카 Energy Forum 등에 적극 參여할 것을 권유.

또한 本委員會의 업무活性化를 위해서 Chairman 밑에 地域別(極東,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中東, 라틴아메리카) 副委員長(4名)을 두어 地域特性을 반영한 강력한 체제를 구축 研究調查業務를 전개 키로함. 極東地域 副委員長에는 金相演 事務局長이 選任되었음.

- 燃料電池 委員會(韓國動力資源研究所 崔壽鉉

博士 參席) :

각국의 燃料電池 技術開發에 관한 최근현황을 발표하고 中間報告書 修正 및 最終報告書 구성내용에 관한 討議를 하였음. 최종보고서는 燃料電池 技術의 概念, 長點 및 應用分野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세계적으로 実證試驗 및 常用化를 위한 개발 노력에 대한 분석과 국가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記述하며, 마지막에 政府機關, 電力 및 가스회사, 일반기업, 研究機關 및 각종 國際機構에 대한 건의사항을 요약하기로 하였으며, 각국의 現況報告書(Country Report)를 添附하여 發刊하기로 하였음.

#### 國際執行理事會IEC)

會員國들로 구성된 WEC 最高의 執行機構인 本 회의에서는 WEC 運營과 事業에 관한 22개의 公식적인 보고와 의결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제15차 WEC總會開催가 확정된 스페인組織委員會가 총회 주제(Energy and Life), 技術會議主題, 總會로고 등 준비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되었음.

— 1995년 제16차 WEC 총회개최를 日本國內委員會가 신청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됨.

— 1990년도, 1991년도 IEC 會議에 관하여 개최국인 브라질과 헝가리측이 각각 준비사항을 보고하였음.

— 북한, 이라크, 바레인, 파테말라, 콩고, 스와질랜드, 레소토, 필리핀(재가입) 등 8개국이 WEC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절대다수로 가결됨 (WEC 총회원국은 79개국에서 87개국으로 증가됨).

— WEC 名稱을 World Energy Conference에서 World Energy Council로,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國際執行理事會)는 WEC Executive Assembly로, Conservation & Studies Committee는 Studies Committee로 變更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사용키로 하였음.

— WEC Journal 등 WEC가 1988년에서 1990년 까지 發刊키로 한 각종의 간행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CIGRE, ICC 등 WEC 관련 주요 國際會議에 각 會員國에 대한 참가요청이 있었음.

— 各 國內委員會의 지난 1년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韓國側에서는 한·리비아 공동에너지세미나 등 3건을 事前에 書面報告하였음.



— Programme Committee의 1989—1992년간事業計劃이 승인됨.

— Conservation & Studies Committee가 주관推進하고 있는 14개 研究內容 報告와 1989—1992期間의 研究課題 推進計劃 보고가 있었음.

— 1989년 修正豫算(案) 承認, 1990년 豫算審議通過 및 年會費 引上案(20%)이 승인되었으며, WEC 特別基金募金(5百萬—千萬파운드)에 캠페인 推進計劃 報告가 있었음.

#### — WEC 主要任員 選任

직책	신임	전임	비고
WEC 總裁	Dr.J.S. Foster (카나다)	Mr.M. Boiteux (프랑스)	총회 개최국에서 선임됨 (1989—1992)
IEC 議長	Dr.G.Ott (서독)	Dr.J.S. Foster (카나다)	'88년 IEC 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금년 IEC 회의 종료시부 터 1992년까지 재임 (1989—1992)
IEC 副議長	Mr.A.N. Makukhin (소련)	Dr. Todoriev (불가리아)	임기(1989—1992)
	Mr.S.G.de Vinuesa (스페인)	Dr.G.Ott (서독)	Dr.G.Ott의 잔여임기 동안만 재임 (1989—1990)
行政 委員長	Mr.P. Krafft (스위스)	Mr.D.H. Fisher (영국)	
節約· 研究 委員長	Mr.H. Ager - Hanssen (노르웨이)	Mr.G. Ekberg (스웨덴)	

#### 總會開幕行事

Mulroney 카나다 수상, Quebec州 수상, 몬트리올 시장 등 카나다 政府側 人士들과 WEC 總裁 Mr.M. Boiteux, 總會 名譽組織委員長인 Mr.Drouin 등의 開會演說이 있었으며, 5,000여명의 참석자들을 위하여 演壇 양측에 대형 Video Screen이 설치되어 Montreal市, Quebec州 및 Canada를 紹介하는 Film과 展示會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를 上

映하였다.

開會式 終了後 Mulroney 수상과 조직위원회측이 에너지技術展示會 開場 테이프를 끊고 이어서 開幕祝賀리셉션이 열렸다.

Mulroney 수상의 演說內容을 요약하면,

• 훌륭한 環境政策과 훌륭한 에너지政策사이에는 相衝되는 요인은 없지만 兩者가 보다더 조화있게 운영되어야 함.

• 環境의으로 타당한 에너지개발의 길은 民間部門의 관심있는 자발적 참여와 消費者의 自覺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짐.

• 에너지消費者인 우리에게 環境問題는 매우 중요한挑戰이며 汚染시키는 者가 비용을 負擔해야 하는 것은 環境政策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에너지產業体와 消費者가 環境問題 해결을 分擔해야 함.

• 그러나 우리모두가 環境污染의 張本人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이에 相應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일임.

#### 總會 本會議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3,000여명의 에너지 關聯 人士들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總會 本會議는 180편의 論文이 발표된 Technical Session, 6개 분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 Round Table,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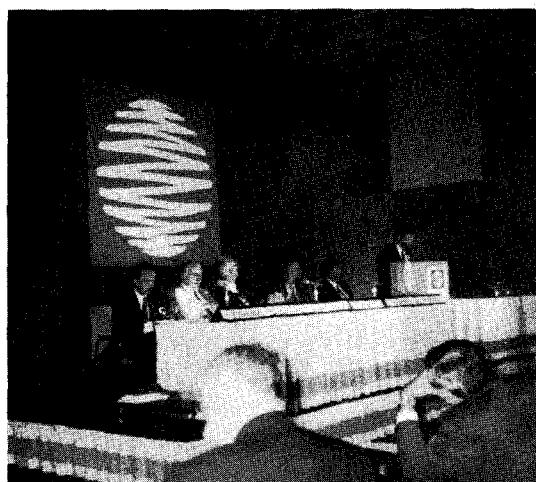
분야로 나뉘어 칸느 總會이후 3年間의 研究結果에 대해 토론을 벌인 Working Group, 특히 이번 總會의 特別企劃 Program으로서 세계적 著名人士를 초청하여 演說을 들은 Strategic Energy Issues 및 上記 會議와 병행하여 실시된 產業施設訪問, 展示會, 各國의 에너지현황과 개발을 소개하는 映畫 및 Video 上映 등이 있었다.

總會 本會議의 전반적인 내용과 韓國側 代表들의 活動事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Technical Sessions

이 技術分科討論會는 4개의 Division(Energy and Society, Energy and the Environment, Energy and the Economy, Energy and Technology)으로 구성하여 첫날 오전에 개최된 4개 Division 合同會議(Plenary Session)時 Division별로 에너지界 著名人士들이 基調演說을 통해 技術分科討論會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각 Division이 다를 중점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合同會議에 이어 제출된 論文(180編)을 16개 小分野로 분류하여 발표와 質疑·討論이 있었으며, 技術會議 마지막날에는 各 Division의 座長들이 이 회의의 内容整理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수렴하여 발표함으로써 會議參加者들의 技術會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各 Division別 基調演說者와 座長은 다음과 같다.

Division	Chairman	Keynote Speaker
Division 1 Energy and Society	Mr.W.O.Doub (미국)	Lord Marshall (영국)
Division 2 Energy and the Environment	정근모 박사 (한국)	Mr.L.Thomas (미국)
Division 3 Energy and the Economy	Mr.J. Eibenschutz (멕시코)	Mr.P.Lougheed (캐나다)
Division 4 Energy and Technology	H.E.Dr.H. Khatib (요르단)	Mr.Ager-Hanssen (노르웨이)

그리고 韓國側에서 提出 發表한 論文은 다음과 같다.

Session 2.2.13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l-fired Plant and Its Possible Socio-economic Impacts to the Society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김은아 책임연구원 홍우희 선임연구원, (한전기술연구원)
Session 3.1.2	Korea's Energy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김호탁 교수 (서울대학교)
Session 3.2.10	A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이상곤 교수 (인하대학교)
Session 3.4.6	Cogeneration : Potential and Economic Decision	권영한 기술정책 연구실장 한영선 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Session 4.1.8	Application and Field Experience with Photovoltaic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송진수 태양광연구실장 (한국동력자원 연구소)

### 2. Review Session

技術會議 마지막날 各 分科委員會 座長들이 各 技術會議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作成·發表한 綜合檢討會議(Review Session)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Division 1 : Energy and Society

에너지 부문의 발전은 技術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制度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共同努力에 달려있으며, 세계의 에너지 문제는 Communication과 國際的인 노력으로 “未來에 대한 다리 (bridges to the future)”를 만들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음.

– Division 2 : Energy and the Environment

環境評價에는 實際의 危險뿐 아니라 예상되는 影響도 包含되어야 함. 環境評價가 잘 수행되면 大衆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効率의 環境管理가 可能해짐. 세계에너지 공급의 長期의 측면에서 原子力を 化石燃料와 비교할 때 汚染物放出을 低減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原子力 技術이 어느 정도까지 이용되어야 하느냐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Division 3 : Energy and the Economy

Energy Project를 위해서는 정확한 經濟的評價가 필요하고,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는 國民經濟 발전은 어렵고 건실한 經濟 없이는 에너지 資源開發 또한 困難함. 開發途上國家에서 環境的으로 無公害한 에너지 문제는 財源不足과 연결되고 이 財政問題야 말로 環境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개발도상국이 겪는 가장 심각한 핸디캡 중의 하나임.

– Division 4 : Energy and Technology

에너지 節約에도 한계가 있고 人口增加와 經濟成長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日本과 같이 賦存資源이 없는 국가든, 中國과 같이 賦存資源이 있는 국가든 原子力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의 原子爐 보다 간단하고, 작고, 安全한 새로운 原子力發電의 개발을 예측했으며, 앞으로 수십년 간은 중요한 에너지 供給源의 역할을 할 原油開發 및 生產方法에 대한 개선을 예측함.

### 3. Round Table

Energy and Industrial Evolution? 등 6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각각 달리 개최된 이 會議에서는嚴選된 Panelist들이 미리 제시된 主題에 대해 토

론을 벌렸다. 本 Session의 目的是 重役陣들에게는 經營方針 決定의 基盤을 다져 주게하였고 技術實務担当者들에게는 方針決定과 技術業務가 보다 적절한 調和를 이를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제공하였다.

이 會議에는 韓國側에서 Round Table 1에 李會晟 에너지經濟研究院長이 Panelist로 참가하였는데 發表한 演說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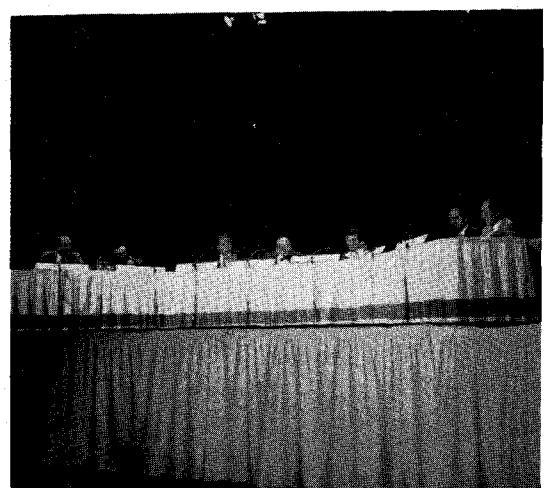
– 產業化와 都市化는 에너지需要膨脹의 主要因임.

– 韓國은 1980년까지 GNP와 에너지需要間의 關係가 1:1의 對應 관계를 보였으나 1980-1985年間에는 GNP 成長率보다 에너지需要 增加率이 매우 낮게 維持 되었음. 그러나 1986년以後 에너지需要增加는 GNP 成長과 매우 밀접하게 進行, 長期의으로 에너지需要와 經濟成長은 불가피한 관계임을 立證.

– 韓國의 높은 經濟成長은 에너지需要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에너지産業의 成長을 가져왔고 消費者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음.

– 에너지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高級에너지로 選好. (에너지價格間 競爭深化로 政府의 에너지價格政策과 에너지 產業投資 결정을 어렵게 만듬)

– 電力部門은 급격한 成長을 하였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향후 10년동안, 供給용량이 2배 增加 예상.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한국 外債問題의 한 要因이



되기도 하였음.

— 개도국에 있어서 經濟開發計劃 수립시 電力需要 증가에 따른 財政負擔은 副次的인 것이긴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임.

— 에너지需要를 증가시킨 요인은 經濟成長(특히 開途國), 商業用 에너지와 非商業用 에너지간의 代替性 增大, 產業의 自動化이며 減少시키는 요인으로는 物理的 交換을 필요로한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키는 情報 革命임.

— 總體的인 에너지需要는 價格體系와 環境要素를 包含한 規制制度에 影響을 받음.

— 에너지增加 趨勢는 피할수 없는 것이며 実質的인 문제는 소비자가 高級 에너지源을 選好함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投資額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임.

— 企業은 에너지節約投資를 企業利益 寄與度가 낮다는 이유로 優先順位를 낮게 책정하고 있음. 節約技術部門에 보다 많이 企業의投資가 유치되어야 함.

— 에너지 節約部門의 特殊性을 감안 절약시장을 형성 즉 기업의投資 優先順位競爭에서 에너지 節約投資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임. 에너지 節約investment를 企業의 利潤에 대한 寄與度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에너지 절약투자 자체의 長點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 社會·文化·經濟的 배경을 달리하는 각국은 에너지問題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解決策을 강구하고 있음. 國家間 協力과 競爭의 적절한 配合이 필요함.

#### 4. Strategic Energy Issues

이번 總會의 特別企劃프로그램으로서 會議參加者들은 세계적 著名人士들의 長期的인 에너지戰略問題에 관한 講演을 통해 귀중한 情報를 얻을 수 있었다.

이 Session에는 開途上國을 대표한 韓國의 李鳳瑞 動力資源部長官과 J.Schlesinger 美國 前 에너지省長官 등 5명의 에너지 關聯 著名人士들이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Attainable or Impossible?',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21st Century'라는 두가지 主題에 대해 각각 演說을 하였다.

그 중에서 開途國 대표로 연설한 李鳳瑞 長官은 參加者들에게 많은 갈채와 好應을 받았다.(李鳳瑞 動資部長官의 演說內容은 本會報 4~5 페이지 參照).

영국 에너지성 John Wakeham 장관은 세계의 에너지자원은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하는데 충분히 존재하지만 에너지사용의 廢棄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되고 세계의 에너지경제는 과거처럼 계속될 수 없을 可能性과 그 變化費用 또한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理性的이고 市場經濟的 접근을 할 수 있다면 環境變化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성 Henson Moore 차관은 쉬운 방법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多樣性을 인정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발전의 費用과 惠澤을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開放된 세계의 시장에서 自由去來를 지지한다면 持續的인 에너지부문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피력함으로서 부시 美行政府의 基本經濟政策의 관점에서 국제간 相互協力과 市場開放을 강조하는 要旨의 연설을 하였다.

이외에 '21세기의 에너지와 地政學'이라는 주제



로 미국의 J.Schlesinger 前에너지성 장관과 WEC M.Boiteux총재가 연설을 하였다.

### 其他 韓國代表團의 活動

이상과 같은 會議參加 이외에도 WEC 各種 研究實務班 會議로서 1986년 칸느 總會 이후 3년 동안의 研究結果에 관해 보고와 토론을 벌인 Working Group Session에 WEC Low Grade Coal Committee委員인 최병선 부장(韓電技術研究院)이 Front Row Expert로, 지금까지 總會Programme에 없었던 New WEC Publications 發表 說明會에는 金相演 에너지협의회 事務局長이 참석하였다.

위의 각종 技術프로그램과 같은 기간에 Hydro - Quebec's Institute 등 에너지產業施設 訪問과 總會 本行事가 끝나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West Coast Splendor, Mountain Adventure 등 17개 코스로 나뉘어 實施된 產業視察에도 韓國代表團의 일부가 참가하였다.

이 밖에 WEC會員國 17개국에서 158개업체가 總會 主題 ‘Energy for Tomorrow’ 및 副題인 에너지와 社會, 에너지와 環境, 에너지와 經濟, 에너지와 技術에 關聯된 에너지 分野 각종 포스터 및 製品을 出品하여 조직된 에너지技術展示會, 카나다政府가 自國의 풍부한 資源 및 에너지現況을 소개하기 위하여 會議場建物 前面에 設置한 Canada Pavilion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總會 技術會議 Division 2 座長인 鄭根謨理事長(IEC 名譽副議長)은 總會 組織委員會가 발행하는 FORUM誌와 “科學技術의 發展과 環境은 調和를 이루어야 하며, 에너지問題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의 長短點을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시스템이라는 全體的인 側面에서 문제를考慮해야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韓國動力資源研究所의 송진수 博士는 카나다 COPRCOM TV 방송과 한국의 太陽光發電 技術現況 및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다.

이번 總會에 參加한 韓國代表團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 WEC 總會 韓國代表團 名單

機關	職責	姓名	備考
動力資源部	長官 鑛業登錄事務所長 祕書官	이봉서 한준호 이승웅	名譽團長
韓國電力公社	社長 技術研究院長 化學環境研究室 先任研究員 뉴욕事務所長 祕書室課長	안병화 남정일 홍옥희 최대용 박규호	團長
韓國ガス公社	理事長	이관	
韓國科學財團	理事長 課長	정근모 신영균	
에너지經濟研究院	院長	이희성	
韓國重工業	理事	권중규	
위즈덤엔지니어링	會長	김선집	
韓國電氣研究所	技術政策研究室長	권명한	
韓國水資源公社	發電部長 開發課長	노재화 홍종명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節約技術 研究센터장 太陽光研究室長	최수현 송진수	
에너지管理公團	專門委員	김호탁	
韓國에너지研究所	部長(検査役) 室長(政策研究部)	유성겸 이영전	
湖南精油	專務理事	권오륜	
京仁에너지	業務理事	전재호	
대우엔지니어링	차장	권유성	
韓國에너지協議會	常任理事/事務局長	김상연	幹事
聯合通信	記者	김덕성	
京鄉新聞社	記者	강충식	

\* 總會期間中 韓國電力公社의 전완영 顧問과 최병선  
部長이 협자서 합류

### 總會參加 綜合結論

금번 總會에서는 “Energy for Tomorrow”라는 Theme에 알맞게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戰略問題가 토론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에너지와 環境에 대한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최근 石油 및 기타 에너지의價格과 需給이 비교적 安定勢를 유지하게되어 그대신 Greenhouse effect, Acid rain과 같은 지구의環境問題가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浮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환경오염에 관하여는 汚染源인 에너지의 약 80%를 先進國이 소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技術開發 및 開途國에 대한 技術移轉 등에 선진국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本行事에 있어 參加者名單 작성 등 事前準備 및進行, 著名人士의 戰略的 Energy Issue 발표도 포합시켜 技術論文發表 및 討論會, 展示會, 產業視察등이 짜임새 있게 실시되어 '86년 칸느 總會時에 비해 進一步한 것으로 느껴졌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先進國들의 独舞台와 같은 인상을 開途國의 參加자들에게 주었으리라고 느껴졌다.

이번 총회에서 IRAQ 등 8개국이 新規 WEC회원국으로 加入되었는 바 특히 北韓(D.P.R. of Korea)의 加입은 韓國이 WEC에 加입한지 20년만의 일이며, 우리측에서 加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好意的으로 대해준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會議에 參가한 北韓側 代表團 3名도 极히 友好的이었다는 点으로 보아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南北間의

相互資料交換 등 協力關係를 摸索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련의 開放 및 改革政策이 영향을 미친탓인지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國家들이 WEC 事業運營 및 활동에 대한 과거의 消極的이고 非協調的인 자세가 현저하게 호전되고 있음을 WEC 年會費 引上 및 研究課題選定 등 審議過程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世界에너지界에서 韓國의 位置는 날로 높아 인식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代表團의 會議參與가 보다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음을 느꼈다.

즉 李鳳瑞 長官의 開途國과 先進國의 中間의 位置에서 独自의 立場을 개진한 基調演說, 鄭根謨博士의 WEC 最高 執行部에서의 活動, 李會晟 博士의 討論會(R.T.)時의 中요한 역할 수행과 5편의 논문제출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 에너지(기술)貧國인 개도국들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되었다.

1986년 불란서 칸느 총회이래 선진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1998년까지는 先進國 開催가 확정 또는 有力視됨으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 개최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